

# 앉아서 출퇴근... 회사 존폐 고심... 마스크 지원을

〈직장인〉

〈소상공인〉

〈택시기사〉

## ‘사회적 거리두기’ 바뀐 서울시민의 일상

3월 첫주 대중교통 이용객 34% ↓ 반토막출근 인한 손해 지원 요구도 실내운동 등 거리두기 노하우 공유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인간 접촉을 최소화해 비말 전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는 취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된 지 일주일여 지난 9일 평소 사람들로 붐볐던 지하철과 버스, 식당, 카페 등이 눈에 띄게 텅텅해졌다. 이 공간들은 다수의 인원이 폐쇄된 장소에 밀집해 감염 우려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 황모(34) 씨는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하철이 버스와 사람이 없어서 정말 쾌적하다”면서 “열차 안에 자리가 없어서 매일 서서 있는데 이제는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에 앉아서 갈 수 있어 좋다”며 활짝 웃었다.



9일 오전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이 제법 한산했다. /김현정 기자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잠시 멈춤’ 운동이 전개된 3월 첫째주 대중교통 이용객수는 발병 전보다 34% 이상 급감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1월 1~19일 평일 지하철과 버스 이용객수는 1142만3000명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된 3월 2~6일에는 748만명으로 394만3000만명 줄었다. 평년 1월 대비 34.52% 급감한 것이다.

시는 “서울시가 3월 2일부터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여파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외

출 삼가로 인해 유동인구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가 추진하는 ‘잠시 멈춤’ 운동에 동참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에서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주부터 격일 교대 근무와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반토막 출근을 하고 있다”며 “당연히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고 2월 매출은 평소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직원의 건강과 복지도 중요하고 회사의 생존도 무시할 수 없기에 힘든 상황에서 직원들의 감봉을 조처하기도 민감한 사정”이라며 “기업들이 맞닿은 존폐위기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수준에서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는 소상공인 긴급 자금지원, 지방세 기간연장과 같은 세제지원 등이 있다”며 “추가 지원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은 마스크라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에서 사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최모(66) 씨는 “손님을 끌러 태울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탈지도 모르는 데 마스크 한 장 제대로 구입할 수 없어 답답하다”며 “마스크 사겠다고 일하지 않고 아침부터 줄 서서 기다릴 수도 없고 영업 끝나고 오후에 가면 5부제라도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최 씨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누구나 마스크를 고루 살 수 있게 동사무소에서 세대별로 판매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시는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스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라이더유니온, 퀵서비스 노동조합 등 이동노동자 단체에 마스크 4만6000개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일상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코로나 극복 실내운동 챌린지 ▲화상회의 활성화 ▲감사일기 작성 ▲지인에게 안부 묻기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6~7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8%는 ‘잠시 멈춤’ 캠페인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잠복기인 2주간 개개인이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한다면 감염을 상당 정도 차단할 수 있다”며 “평상시처럼 활동해서 얻는 이득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얻게 될 일상 회복 속도와 사회적 이익이 몇십배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정책 재검토...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20년단위 목표 재수립 2022년 1월까지 확정 예정 하천 방류 수질 기준 강화 추진

서울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목표를 수립한다. 필요시 5년마다 도시 여건변화를 반영, 하수도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 변경한다.

서울시는 작년 1월부터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하수도 정책포럼’을 운영하며 63차례 회의 끝에 기본 계획에서 우선 검토해야 할 주요 과제를 추렸다.

먼저 물재생센터 분야에서는 하천 방류 수질 기준을 기존보다 더 강화(BOD 10mg/L→3mg/L 이하)하기로 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물을 친환경 자원으로 활용하고, 물재생센터를 문화·여가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마련한다.

하수관로 분야에서는 ▲정화조 없는 하수도 구현 ▲스마트 기술 활용 ▲하

수 이송기능 강화 ▲도로함몰·침수·악취 해소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시는 2022년 1월까지 ‘2040 하수도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40년까지의 서울 하수도 정책의 나침반이 되는 만큼 달라지는 도시 여건변화를 꼼꼼히 반영·검토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적재적소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하수도 정책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무료급식 대신 도시락 들고 찾아갑니다

9일 서울 성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원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고 있다. 복지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료 급식소를 폐쇄하고 일급 끼 분량의 도시락 및 대체식을 관내 취약계층에게 일주일에 한번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성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원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고 있다. 복지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료 급식소를 폐쇄하고 일급 끼 분량의 도시락 및 대체식을 관내 취약계층에게 일주일에 한번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사업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에서 박원순 시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 5·18 40주년 맞아 서울시-광주시 ‘맞손’

서울시와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5개 분야에서 기념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인권·평화 우수정책교류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 ▲광주비엔날레 5·18 특별전 전시 교류 ▲문화·예술 공연 교류

▲5·18 40주년 기념 특별전시 등 5개 분야 사업에 협력한다.

양 도시는 5·18이 포함된 주(5월 12~18일)를 민주인권주간으로 정하고,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 기간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일대에서는 40주년 기념음악회, 국제콘퍼런스, ‘서울의 봄’ 라이브 콘서트, 민주·인권·평화도시 선언 전국대회 등이 열린다. 서울기록원과 광주시청에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시’가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설공단 코로나19 대응 분리근무 시행

서울시설공단은 9~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분리 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리(분산·재택) 근무에 참여하는 인원은 742명이다. 이 중 3~4월 업무가 물리는 해빙기 시설물 안전 관련 직원 77명은 공단 내 업무 공간에 분산 배치된다. 나머지 665명은 3개 조로 나눠 이틀씩 사무실과 자택에서 번갈아가며 근무한다.

공단은 사내 메신저·사내 메일·휴대전화 착신 전환 등을 통해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분리 근무를 추가로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

서울시는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문화정책과와 세무과, 동작구 체육문화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만들고 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관리·감독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따른 것이다.

시는 현장점검에서 관계서류와 장부 등 참고자료를 법인 측으로부터 제출받고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도 검사했다.

시는 신천지 법인과 관련해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



9일 오전 서울시·동작구 합동 점검반 관계자들이 동작구에 위치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를 했다고 보고 있고 이는 취소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신천지 측이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명단을 능가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